Entertainment p/18
'이브'로 돌아온 가수 가인
metro
Sports p/20
손흥민 멀티쇼 시즌 16골
정부 만들어도 되겠네
재벌 계열사 사외이사에 총리·장관 출신 줄줄이 입성 p/11
두산그룹은 9명중 8명이 권력 출신… "재벌 방패막 우려"
어린이집 CCTV법 새누리 재추진키로 p/2
DOOSAN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병원
전 청와대경제수석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대기
전 청와대경제수석

사드 드디어 공론화… 뜨거운 논쟁 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중… 사드 도입 '이중 비용' 논란
중국 반발 넘어야… 여당 일부선 "북핵 방어가 우선 고려대상"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이달 말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격론이 예상될 정도로 안보 분야의 '뜨거운 감자'다. 현재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드의 실효성

사드에 대한 논쟁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은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 200㎞, 최대 요격고도 150㎞로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의 상층(上層)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약 1조원의 예산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개발을 결정했다. L-SAM은 50~60㎞ 상공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데는 L-SAM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군이 최대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긴 사드 배치가 또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시절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의 실효성 논쟁은 돈 문제와 직결된다. 반대론자들은 1포대에 1조원이 넘는 사드가 꼭 한반도에 필요하냐고 말하고 있다.

◆ 국제정치에서의 대외관계

또 다른 논점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와 엮여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지난달 4일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의 우려 표명에서 재확인된 상태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일부인 고성능 레이더가 대중국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같은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내 번복했다. 우리 국방부도 사드의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모두 중국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정치권 중국 반발 넘을 수 있나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안보 국면을 계기로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9일 방송에 출연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 그것보다는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이런 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이날 "사드는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며 "일단 미·중 관계를 떠나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냐를 봐야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설득해야 된다면 설득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1월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를 미·중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 바 있다.

◆ 국방부는 여전히 애매모호

국방부의 입장은 아직 '모호한' 태도 그 자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구매계획은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현재 하층방어와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등을 개발하여 우리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보다 앞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 "사드는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신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자체 배치한 무기시스템은 이후 한국군에게 중고무기로 곧잘 팔리곤 했다는 전례에 비추어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카니예 웨스트 신발사기 위해 밤샘 줄

metro Russia

러시아에서 36켤레만 한정 판매되는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밤샘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6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특별 아이다스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패셔니스타들이 매장 앞에서 며칠씩 줄을 서는 장관이 펼쳐졌다. 이 신발은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카니예 웨스트가 아디다스와 협업해 제작한 컬래버레이션 제품이다.

힙합 음악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카니예 웨스트는 이미 나이키, 루이비통과 협업해 패션업계에서는 디자이너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다.

아디다스와 카니예 웨스트가 만든 신발 '아디다스 이지 750 부스트(YEEZY 750 BOOST)'의 러시아 현지 판매가는 2만9900 루블(약 55만원)로 모스크바에는 단 36켤레만 들어왔다. 이지 750 부스트는 모스크바 내 매장 세 곳에서 12족씩 분산 판매됐지만 모두 판매 시작과 동시에 완판됐다.

밤새 줄을 섰다는 바바라는 "런던에서 서주 종이지만 이지 부스트를 구입하기 위해 모스크바까지 날아왔다"며 "카니예 웨스트가 디자인한 신발은 소장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신발을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이 정도의 기다림은 감수할 수 있다"며 "나이키 슈즈에 이어 아이다스와 협업한 신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리아 부이노바 기자·정리=정윤아기자

성평등 국회 만들기 비전 선포식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 국회 만들기 비전 선포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떡줄을 끊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류인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어린이집 CCTV 재추진

새누리당은 9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오는 4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영유아·보육교사의 인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가진 뒤 "지난 2월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입법 재추진 목소리가 큰 만큼 4월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재추진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을 더욱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영유아·보육교사의 인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감안, CCTV를 설치하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야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한 부분은 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영상 열람 시 사생활·인권 보호 내용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자의 요청 혹은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와 관련해 사생활 인권 보호 시책을 세우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아동학대근절특위 대책회의를 열어 법안을 수정한 뒤 3월 말 의원총회에서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고엽제전우회 '한미동맹 강화' 9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강화 북괴 김정은 타도 종북세력 척결대회' 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정부 국무위원 68% 부동산 의혹 연루됐다"

우윤근 지적…여야 '동업자 정신'에 정치인은 청문회 무사통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도덕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당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임종룡(금융위원장), 홍용표(통일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일제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유일호 후보자는 자녀의 통학거리가 위장전입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와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들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의혹, 언론인 회유·협박과 관련해 위증과 얼버무리기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 불출마 질문에 머뭇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머뭇거리고 있다. 현직의원인 유 후보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 된다. 출마 때 예서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의원들은 더욱 수월했다. 이른바 '동업자 정신'이 여야 간 대립마저 초월했다는 이야기다. 청문회 통과가 위태로웠던 이 총리 역시 초반에는 새정치연합이 무난한 통과를 위해 협조하는 모양새였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리퍼트와 라이샤워

데스크 칼럼
송 병 형
<정치 부장>

지난 토요일 밤 20여년만에 헤어졌던 대학 시절 선배를 만났다. 긴 시간 궁금했던 서로의 소식을 묻고 답하다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에서 자라 버클리대와 서울대를 오가며 동양학을 전공했던 선배라 관심이 많았던 때문이다. 그는 과거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꺼냈다.

라이샤워 대사는 1964년 한일수교 협상차 일본을 찾은 김종필 당시 공화당 당의장을 만나러 가던 중 일본의 극우파 청년에게 칼부림을 당했다. 라이샤워 대사는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 대신 "(수혈로) 내 몸 안에도 일본인의 피가 흐르게 됐다"는 감동적 성명을 발표해 사태를 진정시켰다.

선배는 "라이샤워 대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며 "그럼에도 학자로서는 일본의 뿌리가 백제에서 비롯됐다는 학설을 주장했던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라이샤워 대사의 성명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패전 이후 급격히 성장한 사회주의 세력에게 세 확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이케다 하야토 자민당 내각이 테러 직후 '미친 자의 돌출행동'이라고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라이샤워 대사 피습이 있기 4년 전 일본은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을 반대하는 '안보투쟁'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겪었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퇴진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악몽 같은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미 대사 테러사건으로 꺼진 불씨를 되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정치적 판단은 빛을 발했다. 10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미일방위조약은 1970년 첫 위기를 대중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무사히 넘겼고 이후 미일관계는 '록히드 사건' 같은 악재에도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 피습범이 극좌파 인물이었더라도 상황 관리를 위해 마찬가지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란 데 우리는 의견을 같이 했다.

50여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사태 전개는 역시 정치논리를 따르고 있다. 중국의 굴기로 이른바 G2시대가 열리자 한·미 동맹은 미국에게 더욱 중요해졌다.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입안했다는 리퍼트 대사가 이런 간과했을 리 없다. 리퍼트 대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했고 미국 내 반응도 이번 피습을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다. 새누리당은 한 달여 남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종북세력에 의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한·미관계 악영향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계산 빠른 미국이 국내정치용 행보임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정치논리가 우리사회에 남길 부산물이다. 벌써 극우보수단체들의 종북세력 척결 시위로 서울 시내가 요란하다.

천정배, 광주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선언

천정배(사진) 전 법무부장관이 9일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폭주에도 야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호남정치 부활과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기 위해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안에서조차 호남을 대변하는 것을 지역주의로 매도하면서도 선거 때는 표를 달라고 한다"며 "호남불가론이라는 패배주의에 굴복하며 그들 자신이 호남의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년 야당에 만족하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반드시 승리해 가장 먼저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독점을 깨뜨리겠다"고 강조했다.

천 전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윤다예기자 yoonda@

내국세 자동환급서비스 외국인 관광객 이용 3배

내 백화점 마트·일반상점 등에서 제품을 사고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구매액의 평균 6%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KTIS(케이티스)에 따르면 지난 춘제 연휴를 포함한 10일(2월 18~28일)동안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11만3000명이 인천공항 내국세 자동환급 시스템에서 약 17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9일)와 비교하면 서비스 이용객은 약 3배, 환급액은 약 4배로 급증했다.

이처럼 내국세 환급 규모가 커진 것은 내국세 전자환급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비슷한 형태의 전자환급 단말기 '키오스크'는 10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또 관세청 데이터·중국 최대 카드사 은련카드 정보 등과 연동돼 외국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의 경우 기계에서 바로 원화로 지급된다.

한편 내국세 환급사업(Tax Refund)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여행 중 백화점·화장품·의류 매장 등 환급사업 가맹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 increase of Traveling foreigners using automatic tax refund service

The number of foreigners getting average of 6% of their total purchase returned, before they head back to their home country are increasing.

According to KTIS, it has been found that 113,000 tourists, mainly Chinese, have received around 1.7million dollars back for their tax refund at Incheon Airport last February 18~25.

There were 3 times more users and 4 times more refunded money compared to the National Day of China which was October 1~9th.

This was made possibl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electronic refund system, KIOSC, which looks a lot like the ATM machine, supports 10 languages and is available 24 hours.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자동환급서비스 키오스크. /연합뉴스

Also, it is connected with the customs service and Eun Ryun Card companies which is one the biggest credit card company in China. Therefore people can use this system quickly and easily. Especially any amount under 10,000 won can get their refund directly from the machine.

On the other hand, Tax refund including VAT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of the product's price can be made when foreigners purchase more than 30,000 won worth of products, due to the Domestic tax refund VAT individual consumption tax exemption policy.

/파고다어학원 번역 Chae Kim(김민희) 강사

미 동북부 폭설은 '나비효과' 때문

중국 오염이 기상 이변 일으켜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일대에 내린 폭설을 제설차가 힘겹게 치우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이 미국 동북부에 최악의 한파·폭설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가 실제로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항공우주국(NASA) 제트 추진 연구소 소속 물리학자 조너선 장 박사의 이같은 분석을 8일(현지시간) 소개했다.

NASA의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며 배출된 한 성분 등이 기류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 북태평양 위 구름과 섞이는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오염물질이 섞인 구름이 폭풍의 형태로 미 서부 해안에 비와 눈을 뿌리거나 캐나다까지 전진하면서 미전역에 큰 기상 변화를 일으켰다고 장 박사는 설명했다.

장 박사는 "오염물질이 일종의 씨(核)으로 작용하면서 구름을 더 크고 무겁게 만드는 동시에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며 "더 크고 강력해진 구름폭풍이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미국에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을 몰고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동북부는 이번 겨울 내내 영하 10~20도의 강추위와 눈 폭풍·폭설로 몸살을 앓았다. 교통과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연방정부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이상 한파는 3월에도 이어져 5일에는 남부 텍사스주부터 동북부 뉴욕주까지 폭설이 내려 각급학교의 휴교, 관공서 휴무, 고속도로 마비, 항공기 결항 등이 잇따랐다. /미국정기자 ksrlee@

도쿄는 지금 원전 반대 중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4주기를 사흘 앞둔 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2만여 이상의 시민들이 원전 반대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제107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세계에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진은 각국(미국, 콜롬비아, 프랑스)에서 열린 여성의 날 행사 모습(왼쪽부터). 미국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 거리 행진을 벌였으며 콜롬비아에서는 '여성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피켓 시위가 열렸다. 프랑스에서는 쿠르드 여성들이 여성 폭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AP 연합뉴스

"여성 2등 시민 취급받는 현실 개탄"

'세계 여성의 날' 여권 신장 목소리 주목 뉴욕·뉴델리 등 거리행진

올해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세계가 여권 향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비인간적 노동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 1만5000명이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유래됐다. 유엔은 1975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1000여 명이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벌어졌다. 이들은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중심지인 타임스퀘어까지 행진하면서 여성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95년 189개국이 서명한 '베이징 여성권리 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진전은 너무 더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100% 발현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잠재력을 존중하고 이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성의 날 기념 성명을 내고 "세계적으로 여성이 큰 공헌을 하는 것과 달리 많은 곳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한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도 권리와 존엄을 갖춘 인간이지만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여성의 권리 신장을 외치는 목소리는 전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지참금과 조혼으로 인한 여권 침해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여성들이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것'이란 피켓을 들고 여성 폭력 반대를 외쳤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많은 편인 프랑스는 쿠르드족 여성 살해 사건과 미진한 수사로 잦은 진통을 앓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은행권 신입채용 '탈스펙' 바람

상반기 500~600명 뽑을 듯…예년과 비슷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개막하면서 금융권에도 인재 영입에 시동이 걸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전체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500~600명 가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과 통합, 구조조정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다만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채용 인원을 2배 확대하는 한편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은행권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탈스펙' 바람이다. 영어 성적이나 출신 학교, 학점 등 소위 '스펙'보다 지원자들의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 인문학적 소양을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40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더 늘어난 규모로 기업은행은 3월 중 상반기 채용공고를 내 약 20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채용 또한 학력과 연령 등에 제한 없이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4분간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 등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당신을 보여주세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열정과 역량만을 평가하겠다는 것.

"자기 PR" 면접으로 참신하고 적절한 홍보를 한 지원자에게는 서류전형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은행은 상반기 7급 일반행원 65명(고졸 20명, 대졸 45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지원자는 10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간이면접, 필기시험, 실무자면접, 최종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돼 내달 22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대구은행은 또 보훈대상자 15명을 별도로 채용해 국가 유공자 등을 우대키로 했다.

학력·성별·연령에 제한 없는 은행권의 채용 전형 변화에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신입행원 공채 서류전형에는 전국 8000여명이 몰려 약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두 150명을 선발하는 이번 공채는 이광구 은행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스펙보다는 바른인성과 적극적인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채용"을 주문함에 따라 채용시 학력과 전공,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개인금융서비스직군 공채시 평균 40대 1의 수준에서 이번에는 54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며 "CEO의 인사원칙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We크루팅' 제도도 한 몫했다"고 평가했다.

'We크루팅'은 전국을 순회하며 예비지원자에게 은행의 인재상과 전형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면접을 통해 우수인재를 사전에 발굴하는 새로운 채용방식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은 현재 채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지난해(상반기 100명)와 비슷한 규모를 채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뽑지 않는 대신 하반기에 공채를 할 계획이다. 작년 국민은행은 290명을 선발했다.

/서하은기자 seoha2000@metroseoul.co.kr

우리은행 미술대회 개최

우리은행은 9일 제 20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700명의 수상자를 선발,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예선 참가 대상은 만 5세 이상 어린이부터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4월 3일까지 우리은행이나 우리미술대회 접수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예선작품 실물을 우리미술대회 사무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자유 주제'로 포스터와 만화를 제외하고 작품 종류의 제한은 없다.

단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과 중, 고등부는 4절지, 유치부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은 8절지에 그린 후 접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본선에 참가할 1400명의 예선 통과자는 주요 미술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20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본선 실기대회는 대회 개최 20주년을 맞아해 5월 1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대회 최종 수상자는 5월 29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시상식은 6월 13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다.

2월 수도권 주택거래 10년 만에 가장 많아 지난달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2006년 2월 이후 최대치인 3만7500건을 기록했다. 특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며 전세가와 가격이 비슷한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거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남산 인근에서 바라본 시내. /연합뉴스

국내은행, 작년 해외 영업익 6억3천만 달러

외환은행 실적 1위 · 우리·신한 뒤이어

국내은행의 지난해 해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점포 수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계 해외영업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억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억5000만 달러)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이들 은행은 현재 해외 36개국에 총 107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873억3400만 달러였다.

해외수익 1위 은행은 외환은행으로, 이 기간 25개 해외점포에서 1억34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총 자산은 181억7400만달러다. 이어 우리은행은 22개 점포에서 1억24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신한은행은 13개 점포에서 영업이익 1억1700만 달러를 냈다.

뒤이어 산업(13개 점포, 1억500만 달러), IBK기업은행(7개 점포, 7200만 달러), 하나(7개 점포, 3900만 달러), 국민(9개 점포, 2700만 달러), 수출입은행(4개 점포, 800만 달러), NH농협은행(2개 점포, 200만 달러), 부산은행(1개 점포, 100만 달러) 순이었다. 대구은행은 1개의 해외 점포에서 1억41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은 없었다.

하지만 해외 실적 증가세에도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됐던 해외점포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996년 114개보다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한 외환은행의 경우 과거 외환업무를 주로 취급한 영업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영업익 상위권에 포진한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김정훈 의원은 "전세계 금융업계가 저성장·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혁신을 위한 경쟁에 전념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금융업계는 우물 안 개구리가 돼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arket index (9일)

코스피	코스닥
1992.82 (-20.12)	622.26 (-6.58)

금리	환율
1.92 (-0.02)	1102.20 (+10.90)

뉴스&뉴스

코스피 美 금리인상 우려 '흔들' 코스피가 9일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 여파로 2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대구銀 '新스마트뱅크' 서비스

대구은행은 9일 핀테크 열풍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新스마트뱅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웹 기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비롯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앱'은 기존 플랫폼마다 다른 앱 실행 환경을 가지고 있어 호환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웹과 단말기 등 여러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쉽다.

스마트뱅킹 모바일 앱은 개인과 기업뱅킹 앱 두 가지로 나뉘어 출시된다.

또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지정할 수 있는 개인화 메뉴가 제공된다. 보안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공인인증센터의 기능도 공용폴더(NPKI) 대신 탈취가 불가능한 앱 내부 보관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스마트기기 간 인증서 복사, QR코드 형태 복사 기능 제공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중장년층을 위해 3단계로 글씨 조정이 가능한 큰 글씨 기능도 제공하며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조회, 이체, 공과금 등의 주요 메뉴는 영어를 지원한다.

한편 대구은행은 새로운 스마트뱅크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인터넷과 스마트뱅크 전용 예금의 기본금리를 인상하고, 오는 5월까지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키로 했다.

행사 기간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회차별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미라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아00000

유로존 양적완화 훈풍…수혜 업종은?

전문가들 "대형주·경기민감주 유망"

유럽중앙은행(ECB)이 9일(현지시간)부터 양적완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훈풍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5일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9일부터 2016년 9월까지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6년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약 73조원)씩 총 1조1000억 유로(약 1400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린다. ECB의 양적완화는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양적완화로 당초 1%로 예상됐던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로 올라갈 것"이라며 "필요시 양적완화를 오는 2016년 9월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럽의 양적완화는 유럽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럽에서 풀린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특히 유럽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할 경우 대형 수출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준호 BS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자금유입 기대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 민감주, 수출주 등을 매집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유, 화학, 조선, 건설 등 그동안 유럽 리스크로 낙폭이 과대했던 경기민감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요섭 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럽과 아시아 증시에 자금이 몰리며 이들 지역 주가가 미국보다 강세라는 점"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수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기민감주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간 상대적 약세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이 없는 편이어서 주요 매수 타깃이 될 것"이라며 "경기민감주 중에서도 이들 대형주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건설수주 회복세 뚜렷

전년비 33%↑…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 9조2119억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1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9조21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6조9427억원에 견줘 32.7% 증가한 것으로, 199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월분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수주액의 증가는 주택시장 회복에 힘입은 민간부문이 이끌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전년 동월(3조6162억원)보다 74.2% 늘어난 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토목공종이 4749억원에서 191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건축공종이 3조1412억원에서 6조1088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거제 양정(하남 지역) 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주택과 죽전3지구 대구우방타운 등 재건축 수주가 활발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9119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월 높은 실적(3조3266억원)의 영향으로 12.5% 감소했으나 최근 10년간 매월 1월 실적으로는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2조6613억원에서 2조3758억원으로 10.7%, 건축이 6653억원에서 5361억원으로 19.4%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주액이 늘어 공공과 민간 모든 부문에서 의미 있는 수주 실적을 거뒀다"면서도 "아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 격차가 심해 수주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s@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9기 뱅키스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갖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뱅키스 브랜드 홍보활동과 함께 금융 서비스 체험 교육, 부서 탐방과 직원 멘토링 등 금융 지식과 실무를 배우게 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 제9기 뱅키스 대학생 홍보대사 출범

대학생 40명 모집 6개월 대장정

한국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9기 뱅키스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갖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제9기 뱅키스 대학생 홍보대사는 지난 2월 금융 마케팅에 관심 있는 열정적인 대학생을 모집해 최종 4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뱅키스 브랜드 홍보활동과 함께 금융 서비스 체험 교육, 부서 탐방과 직원 멘토링 등 금융 지식과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홍보대사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과 한국투자증권 입사 지원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송상원 e비즈니스 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이 준비한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학생 홍보대사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뱅키스가 더욱 젊고 활기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홍보대사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BanKIS)는 전국 15개 은행 금융기관과 연계해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다. 지난 6년간 200여명의 대학생이 뱅키스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활발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이은지기자

신한금투, 年 5.1% 'CMA R+ 체크카드' 출시

신한금융투자는 9일 최고 연 5.1% CMA금리 혜택을 주는 '신한금융투자 CMA R+ 체크카드'(이하 CMA R+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출시된 'CMA R+ 신용카드'의 혜택에 체크카드의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접목한 상품이다.

고객은 한 달에 50만원만 사용해도 정기예금이자의 두 배에 달하는 CMA금리(3.9%)를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이 증가하면 금리도 올라가는 구조로, 10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제공금리는 5.1%다. 30만원 이상 사용시 3.4% CMA금리가 제공된다(CMA 금리우대 서비스 적용시).

이밖에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가 최대 30% 할인되며 CGV 온라인 영화예매 시 7000원,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40원 캐시백,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최대 5% 캐시백 등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라는 특징이 있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챙길 수 있다.

송용태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본부장은 "CMA R+ 체크카드는 정기예금금리 1%대 시대에 수시입출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1%의 고금리를 제공한다"며 "소득공제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CMA R+ 신용카드에 이어 이번 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무위험 중수익 카드상품 라인업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증권과 타 금융업권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복합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주식 투자' 서울 거주 개미들 절반 넘어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넘는다.

개인 주식 거래액의 82%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거래소가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 지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지역별 거래대금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51.70%로 가장 높았다. 이 비중은 경기(26.53%)와 인천(3.31%)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 거래대금의 81.55%를 차지했다.

또 울산(1.78%)과 부산(1.66%), 대전(1.37%), 대구(1.38%) 등 순이다. 반면 강원(0.38%)과 광주(0.42%), 전남(0.45%) 순으로 거래대금 비중이 작았다.

서울 지역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 비중은 1년 전보다 6.37%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와 울산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아졌으나 경기와 인천, 경남 등은 비중이 작아졌다.

시장별로 서울·울산·경남·대구·광주·전북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인천·경기·부산·경북·대전·충남·충북·전남·강원·제주는 코스닥시장에서 더 많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거래대금의 99%가 코스닥시장에 집중됐고 경남은 53%가 유가증권시장에 투자했다.

/이은지기자

웃돈 9000만원…동튼 동탄2신도시

3월에만 올 한해 분양 물량 30% 공급

건설사들이 3월 봄 성수기를 맞아 그 동안 준비했던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이 봇물을 이룬다.

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6개 사업장에서 373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연내 동탄2신도시에 분양 예정된 1만 여가구 중 약 30% 이상이 3월에 집중된 것이다.

◆동탄1신도시 전세난에 2신도시 인기

동탄2신도시의 배후인 동탄1신도시의 지난해 말 기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은 81.64%로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인근의 판교(68.01%)나 광교(59.6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며 전국 223개 시·군·구에서도 최고다.

전세가격에서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보니 동탄2신도시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지난 2012년 8월 시범단지 A10·A15·A22·A25·A27 등 5개 블록에서 동시 분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23개 단지에서 2만4000여가구가 공급됐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한때 과잉 공급으로 345가구에 달했던 미분양도 지난해 12월 기준 단 1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동탄2신도시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1동탄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해 2동탄 매매자로 돌아서고 있다"며 "동탄2 시범단지 내 아파트는 벌써 프리미엄이 최고 9000만원이 붙었는데 분양권 거래에서는 이보다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범단지 내 전용 84㎡ 기준 아파트는 4억9000만원대 외곽은 4억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본다"며 "역세권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은 내려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동탄1신도시 인근의 실수요자들과 외부 투자 수요가 맞물려며 중소형 물량을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의 프리미엄은 1억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TX동탄역 – 웃돈 갈림길

입주가 시작된 동탄2신도시의 프리미엄은 KTX동탄역을 중심으로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 수서역과 이어지는 KTX 동탄역이 내년 초 개통 예정인 것이 이 지역 최대 호재로 꼽힌다. KTX가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10여 분이면 닿는다. 올해 말 KTX 수서~평택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고 시범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교통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역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역에서 멀어질수록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2신도시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우남퍼스트빌은 8000만~9000만원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라며 "인근의 계룡리슈빌은 7000만원, 공원 아래 쪽 호반베르디움은 7000만~8000만원 웃돈이 붙었는데 동탄역과 광역환승센터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동탄역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프리미엄은 낮았다. 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곳은 평균 4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웃돈이 형성돼 역세권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도 동탄2신도시 프리미엄의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을 오는 2017년까지 하지 않기로 했고, 오는 4월 민간택지에 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함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3월 분양에 나서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새 아파트의 경우 희소성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동탄2 노른자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특히 이번 3월에 눈길을 끄는 곳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중심상업업무지구) 내에 분양하는 물량이다. 중심상업업무지구는 KTX동탄역은 물론 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업무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이다. 입지적으로 1신도시와도 인접해 동탄1, 2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가 위치해 시범단지 못지 않은 교육 인프라를 자랑한다.

이달 3개 단지가 중심상업업무지구 안에서 분양에 나선다. 반도건설은 A37블록에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을, A2블록에 6.0을 각각 분양한다. 2개 단지 모두에서 전용면적 59㎡에서 96㎡ 규모로 5.0이 5개 동에서 총 545가구, 6.0은 6개 동 총 532가구다.

우미건설은 지구 내 C12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린스트라우스1차를 분양한다. 아파트 617가구와 오피스텔 262실을 합해 총 879가구다. 아이에스동서는 A34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예미린의 뜰'을 분양한다. 아파트는 전용 74~84㎡에 489가구다.

대우건설은 A1블록에서 전용 74~84㎡ 총 834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가 모두 있다. 금성백조주택은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입지 한 A11블록에서 '동탄2 금성백조 예미지'를 분양한다. 총 451가구 규모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올 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시범단지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초기에는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 인근의 중심상업업무지구 내 단지로 웃돈이 옮겨가며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동탄2신도시 3월 분양 아파트

단지명	위치	건설사	전용 면적(㎡)	가구수	문의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	A1블록	대우건설	74~84	832	1899-5577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	A37블록	반도건설	53~96	545	1800-0037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	A2블록	반도건설	53~96	532	1800-0037
동탄2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	A11블록	금성백조주택	84~96	451	1899-2006
동탄2신도시 예미린의 뜰	A34블록	아이에스동서	74~84	489	031-221-4700
동탄 린스트라우스1차	C-12블록	우미건설	75~92	617	1588-9707

–자료: 각 업체, 상기 일정은 각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동탄1·2신도시 중심 '2차푸르지오'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동탄2신도시 A1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15~25층 10개동, 전용면적 ▲74㎡ 256가구 ▲84㎡ 576가구 등 총 832가구로 이뤄졌다.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가 들어설 A1블록은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양쪽의 생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중심부에 위치, 동탄에서도 우수한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지 바로 옆으로 초·중·고교가 나란히 신설될 예정이며, 단지 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선다. 특히 초등학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두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다.

수서발 KTX(2016년 개통 예정), 동탄~일산 GTX(2020년 개통 예정)를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이 도보 거리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1년 개통 예정) 등의 도로망과도 가깝다.

단지 남측으로 치동천이 흐르고, 수변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오산천을 따라 들어선 반석산근린공원, 노작공원, 큰재봉공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 역시 13.9%와 174.9%로 낮고, 조경시설은 법정기준인 30%를 초과하는 46.5%가 적용돼 쾌적하다.

전체의 약 87%에 해당하는 721가구를 인기높은 4-bay 평면으로 설계했다. 주력평면인 84㎡ A타입은 4-bay 평면에 방이 4개가 제공되며, 확장형 드레스룸이 적용된다.

각 세대에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센서식 싱크절수기 등 대우건설의 친환경 주거상품 '그린 프리미엄' 아이템이 적용돼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KTX동탄역 인접 '동탄 린스트라우스1차'

우미건설

우미건설은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C-12블록에서 '동탄 린스트라우스1차' 복합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44층, 4개동, 전용면적 75~92㎡ 아파트 617가구와 23~49㎡ 오피스텔 262실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KTX 복합역사와 연계해 조성되는 특별계획구역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업무·문화·생활시설의 복합적인 개발이 예정됐다.

특히 C-12블록은 내년 개통 예정인 KTX 동탄역과 인접, 상업·업무시설을 모두 도보권에 두고 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1차는 단지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원스톱 라이프'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아파트와 상업시설과의 분리 배치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스트리트형 테마 상업시설 '엘리스 밸'이 조성되며, 남향 위주 배치와 일반아파트 수준의 전용률을 갖췄다.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에는 인덕션 쿡탑,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비데 등 다양한 옵션을 설치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우미건설은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서 9월 중 '동탄 린스트라우스2차'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94실 등 125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지어진다.

동탄 최대 브랜드타운 '반도유보라'

반도건설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A37블록과 A2블록에서 각각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을 분양한다.

반도건설 '반도유보라'는 동탄1·2신도시 통틀어 최고 청약경쟁률, 최다 분양 등의 기록을 세운 동탄 최대 브랜드다.

두 단지 모두 전용면적 59~96㎡로 구성됐으며, 5.0은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545가구 규모다. 6.0은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동 532가구로 이뤄졌다.

위례신도시의 트랜짓몰로 불리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지어져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KTX·GTX(예정) 동탄역과 광역환승센터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모두 도보 거리이고, 단지 인근으로 약 30만㎡의 오산천변 대형중앙공원(가칭)이 들어선다.

반도건설은 이번 5·6차가 동탄2신도시에서의 마지막 분양 물량인 만큼, 앞서 1~4차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할 계획이다.

우선 각 단지에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만들어 입주민의 교육여건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 59㎡, 74㎡, 84㎡, 96㎡의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이전 분양 단지에서 호응이 좋았던 주부멀티공간과 수납공간 특화,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대표 브랜드 반도유보라의 마지막 분양인 만큼,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화디자인밸리 첫 단지 '에일린의 뜰'

아이에스동서

아이에스동서는 동탄2신도시 A34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에일린의 뜰'을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7~15층 9개동, 전용면적 ▲74㎡ 59가구 ▲84㎡ 430가구 등 총 489가구 규모다.

동탄2신도시 에일린의 뜰은 동탄 유일의 문화특구로서 주거·문화·교육 등이 가능이 집약된 문화디자인밸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특히 동탄2신도시에 속하면서 1신도시와도 인접해 1·2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도보권에 들어서고, 동탄국제고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오산천과 국내 최초의 공원형 문화시설인 트라이엠 파크(예정)가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4-bay, 4-room 혁신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측면 발코니 설치로 면적과 공간효율성도 높였다.

초·중·고 도보 거리 '금성백조 예미지'

금성백조

금성백조주택은 동탄2신도시 A11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를 분양한다. 지난 2012년 A17블록에 이은 2차 물량이다.

지하 1층, 지상 25층, 5개동, ▲전용면적 84㎡ 110가구 ▲96A㎡ 225가구 ▲96B㎡ 116가구 등 총 451가구로 구성된다.

KTX·GTX(예정) 동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광역 도로망과도 연결됐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각지로 쉽게 접근 가능하다.

주거 중심인 시범단지는 물론, 상업·업무 중심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와도 가까워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또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과 치동천을 끼고 있다.

무엇보다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계획돼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유치원과 중·고교 예정부지도 도보 거리다.

전 세대 'V'자형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동간 거리를 넓혀 채광·통풍을 극대화했다.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를 구현했고, 녹지와 조경을 활용해 단지 앞 근린공원과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베일 벗은 애플워치… 삼성·LG 스마트워치 긴장

애플 합류로 '손목 위 경쟁' 시작

애플이 신제품 '애플워치'를 시장에 내놓고 스마트워치 경쟁에 합류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긴장하고 있다.

애플이 미국 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10일 오전 2시) 스마트워치 전쟁을 선언했다.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발표한 것은 지난 2010년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특히 스티브 잡스 사후 처음으로 내놓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으로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새로운 시험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애플워치는 1.5인치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표준형 제품 외에 18K금과 사파이어 크리스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고급형 제품이 함께 출시된다. 본체에는 적외선센서, 심박측정기 등이 탑재됐다. 프로그램 키, 운동, 건강관리, 모바일 결제, 스마트카 기능 등도 포함됐다.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패드를 처음 소개했던 샌프란시스코 예바 부에나센터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첫 스마트워치 제품으로 오는 4월 출시될 '애플워치'의 구체적인 기능과 가격 등을 공개했다. 이날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스포츠', '애플워치 에디션' 등 모두 3개의 모델을 선보였다.

가격은 애플워치는 350 달러 가량이고 애플워치 스포츠는 500달러 정도다. 전용 앱 수만 27개에 달할 정도로 애플이 앱 개발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워치는 시각적 디자인이다. 출시되기도 전에 독일 iF(International Forum) 디자인 어워드에서 골드 어워드에 올라 화제가 됐다. iF 디자인 포럼은 "애플워치가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며 "금속, 가죽과 같은 클래식한 재질에 첨단 기술을 섞어 개인적인 패션 액세서리로서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원형 스마트워치 '어베인 시리즈'를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또한 삼성전자는 오르비스(Orbis) 프로젝트 하에 개발한 첫 원형 스마트워치 공개를 앞두고 있어 애플-삼성-LG전자 등 3사를 중심으로 스마트워치 시장 선점을 위한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애플워치의 출시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갤S6·엣지 초반 인기 잇나

배터리·수리비용 등 불안 요소 감지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초반 인기는 대단하다. 반면 불안한 요소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세계 이동통신 업계로부터 선주문량 2000만대를 기록했다. 이 중 1500만대는 갤럭시S6, 500만대는 갤럭시S6엣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6와 6플러스의 선주문량 400만대보다 5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S6와 S6엣지가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주문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예감은 초반 돌풍을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9일 오후 강남역과 왕십리역의 휴대폰 대리점 5곳을 방문해 '갤럭시S6·엣지'에 대한 매장 관계자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제품 디자인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일체형 배터리 ▲무선충전 기술 ▲제품 수리비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 강남역 안근 대리점 관계자는 "아직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좋은 것 같다"며 "특히 전작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된 디자인이 맘에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점 점주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5의 출고가를 낮췄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며 "제품 구매시 디자인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갤럭시S6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6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대다수 대리점에서 디자인을 호평했지만 '일체형 배터리'와 '제품 수리비용'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왕십리역 인근 대리점 관계자는 "기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경우 일체형 배터리를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 이동한 소비자 대부분이 배터리 때문이었다. (갤럭시S6·갤럭시S6엣지 판매시) 보조 배터리도 준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이 출시되면 보통 3개월가량 테스트하는데 아이폰에 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고 덧붙였다.

또 제품 수리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갤럭시노트4 액정 수리비는 22만3000원인 반면 엣지는 35만4000원이다. 갤럭시S6엣지도 비슷한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로 선보인 무선충전 기술과 관련해서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무선 충전 코일을 슬림화했는데 그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제품 공개전까지) 삼성의 기술력을 판단하기 힘들지만 코일이 슬림화 될 경우 전송효율이 떨어져 충전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중국 제조사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엣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illegible]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

삼성전자가 러시아의 주요 문학상 중 하나인 톨스토이 문학상을 13년째 후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톨스토이 재단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러시아 문학상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올해의 후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삼성전자가 9일 전했다.

후원 행사에는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후손 블라디미르 톨스토이와 엘레나 밀로브조로바 러시아 문화부 차관, 삼성전자 CIS총괄 김의탁 전무 등이 참석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2003년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제정됐다. 올해부터 보단클래식상, 21세기상, 아동-청소년 청년상 등 3개 부문 외에 해외문학상, 삼성특별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문학상은 외국 작가의 문학작품 중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삼성특별상은 후보작을 독자들이 개인 모바일 기기에서 해당 작품을 읽어볼 수 있게 해 선정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소재한 국립도서관 파쉬코프하우스에서 열린 제13회 톨스토이 문학상 계획 발표 행사장에서 삼성전자 CIS총괄 김의탁 전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톨스토이 재단은 5월까지 매월 역대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자와 심사위원을 초청해 토크콘서트 '진지한 대화 (A Serious Conversation)'를 진행한다. 또 러시아 고전문학을 내려받을 수 있는 e북 프로그램 '라이브북(Live Book)'도 마련해 독자들에게 서비스한다. /[illegible]기자

삼성·LG, "음향기기 한판 붙자"

서라운드 음향 커브드 사운드바 vs 휴대성 강화한 포터블 스피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음향기기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서라운드 음향을 제공하는 2015년형 커브드 사운드바 'HW J8501'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곡률이 4200R로 삼성 65인치, 78인치 프리미엄 커브드 TV와 동일하게 설계돼 함께 배치했을 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사운드바 좌우뿐 아니라 중앙에도 스피커 유닛을 추가했고 350와트(W) 출력과 9.1채널의 보다 강화된 음향으로 또렷하고 풍부한 서라운드 음향을 제공한다. 또 저음역대 출력을 강화한 무선 서브우퍼를 채용해 입체감 있는 사운드에 웅장함을 더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클리어 보이스(Clear Voice)' 알고리즘은 추가된 중앙 스피커와 함께 주변 소음을 억제하고 출력되는 음성 음역대를 선명하게 재생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날 LG전자는 음질과 편의성을 강화한 휴대용 스피커 'LG 포터블 스피커'를 국내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작 대비 출력을 3배 이상 높인 20와트(W)의 고출력 사운드를 지원하며 중저음을 담당하는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하나 더 추가한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채택해 풍부한 중저음을 제공한다. 독자 음향기술 '오보 사운드 엔진'을 탑재해 음량이 작아도 음질의 손실 없이 또렷한 사운드를 구현한다.

이 제품은 2대를 연결할 경우 각각 스테레오 시스템의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의 역할로 활용 가능하다. LG 사운드 싱크(LG Sound Sync) 기능이 지원되는 TV와 연결하면 미니 사운드바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작보다 사이즈가 작아졌으며 한 번 충전 시 최대 음악 재생시간은 9시간이다.

/삼성전자·LG전자 제공

/[illegible]기자

김동수·한승수·윤증현 "나는 두산맨"

두산그룹 사외이사에 총리·장관 줄줄이… "재벌 방패막 우려"

두산그룹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모신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두산중공업, 한승수 전 국무총리·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영입한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평창 동계올림픽용 철도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전 공정위 수장 출신 인사로 '방패막이'를 설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한 고위관료 출신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2월 공정위원장에서 물러날 당시 "공정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학계나 연구소에 몸 담으며 공정거래 이론 개발 등에 힘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년 취업제한이 풀리자마자 공정위가 조사 중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꿰찼다.

두산중공업은 2013년 4월 평창 동계올림픽용 철도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KCC건설 등과 투찰가를 사전 합의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강원도 원주~강릉간 철도 공사 제2공구 입찰에서 현대건설과 도색부터 문장부호 사용과 표 간격까지 일치한 서류를 제출했다. 입찰 금액에서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KCC건설이 적정가의 51%로 써냈다.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사전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이들 4개업체들을 신고했다.

경제개혁연대 방정민 연구원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회사가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두산중공업은 김 전 위원장에 상황을 타개할 바람막이 혹은 로비창구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의 선임에 대해 "경륜과 덕망을 높이 평가한 것이 사측 공식 입장"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작년 사외이사 보수는 1인 평균 4800만원이었으며 올해 보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산인프라코어도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올린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신규 사외이사는 고위공직자나 권력 기관 출신 일색이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전 장관, 박병원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로 내정됐다.

한승수 전 총리는 상공부 장관, 주미대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금융통 관료 출신이다.

박병원 전 비서관의 경우 포스코 사외이사로도 선임될 예정이다. 박 전 비서관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달 27일 사외이사 선임 공시를 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행복기금 내표 이사를 맡고 있어 임원 겸직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5일 국민행복기금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사외이사 논란이 주총 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총을 통해 두산건설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김항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주)두산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이종세 변호사를 신규선임,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 신희택 서울대 교수를 재선임한다.

/정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LGU+, 아이모리 사진인화 할인이벤트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사진 전문 서비스 '아이모리' 애플리케이션 이용고객에게 오는 31일까지 사진인화 가격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모리 앱에서 3×5 기본 사이즈 사진을 31장 이상 인화할 경우 30장까지 기존 인화요금을 90% 할인된 장당 10원에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쉐보레, 국내 도입 4주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 최첨단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제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쉐보레 브랜드의 국내 도입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가까운 쉐보레 전시장에서 스케치북을 수령, '자동차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하에 자동차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후 우편을 통해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예선 응모기간은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응모작 가운데 쉐보레와의 연관성, 창의력, 독창성, 색채의 조화도, 작품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유치부 40명, 초등부 60명 등 총 100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5월 9일 한국지엠 본사 홍보관에서 개최된다. 최종 선발된 유치부 8명, 초등부 12명 등 총 20명에게는 상장과 트로피를 비롯, 총 2000만원 상당의 연수권, 여행권, 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예선 당첨자 공지 등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쉐보레 공식 홈페이지(www.chevrole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기자 hm8

한상범 LGD 사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선임

한상범(사진)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앞으로 3년간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를 이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9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2015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한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부, 대기업-중소기업 파트너들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부품과 소재, 장비, 패널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계의 경영애로 사항을 개선하고 연구개발(R&D) 혁신활동,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대중국 지원활동, 전시회·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역할을 한다.

협회는 올해 회원사 간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업계 경영 애로 개선 ▲창조적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중소기업 판로 확대 ▲대중국 협력 및 국제 활동 기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비용을 공동 투자하는 신개념 연구 개발(R&D) 사업인 미래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사업(KDRC-Korea Display Research Corporation)에 5년간 28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승호기자 hm8

B tv, '뽀로로와 노래해요' VOD 서비스

IPTV 최초로 단독 제공

SK브로드밴드(사장 이인찬)는 '뽀로로와 노래해요 시즌3'를 IPTV 최초로 B tv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뽀로로와 노래해요'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뮤직비디오 시리즈로 시즌3가 지난 6월부터 EBS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EBS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B tv에서 VOD로 서비스한다.

회사 측은 "IPTV VOD 부문에서 '뽀로로와 노래해요'의 인기가 높다"며 "뽀로로 관련 콘텐츠 조회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뉴미디어에 최적화된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02년부터 키즈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해 IPTV 독점 VOD방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는 '로보카폴리 시즌3', '레전드 히어로', '캠릭시 키즈', '레이디버그' 등의 애니메이션을 B tv에서 독점 제공할 예정이다.

/유선준기자

동부제철, 1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동부제철은 9일 열연공장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Air Liquide Korea Co.,Ltd)가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동부제철 측은 "소송 신청인에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소송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가 추정한 청구 금액은 1100억원 규모다.

동부제철 측은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중재에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리기자

고재호 지키기 나선 대우조선해양 노조

"외부 낙하산 인사 대표이사 선임 시 파업 불사할 것"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면서 노조가 현 고재호 사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고 사장 등 내부인사를 제외한 외부 인사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9일 서울 을지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는 "조선업계 특성상 현 3년의 사장 임기는 짧다"며 "고 사장이 재임하며 지난 3년 동안 수주한 성과를 엉뚱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는 오랜 신뢰 관계로 이어지는데 신임 사장 선임 문제가 지속되면서 1분기 성과에 타격을 입었다"며 "어려운 조선경기를 돌파

대우조선 노조는 9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사장 선임을 촉구하고 낙하산 인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후임 대표이사를 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3년 임기의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 두 달 전에는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선임됐다는 설명이다.

현 대표이사인 고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20여일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31.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표이사 선임 결정권을 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고, 정부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 인선을 미루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도 집행이 늦어져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신임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종사하며 경력을 쌓은, 우리의 문화를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영달에 눈먼 외부 경영자나 정치권의 줄서기로 거론되는 낙하산 인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며 "정치권 등에서 온 낙하산 인사가 사장이 된다면 우리는 투쟁계획에 따라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지만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고 사장에 대한 유임이나 교체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재무제표 승인 등의 일반 경영 사항만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용기자 soman@metroseoul.co.kr

현대차, 아슬란 클래식 시승자 모집

현대자동차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아슬란 클래식(사진)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9일부터 20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사측은 "고해상 12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아슬란의 오디오 시스템으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정숙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총 10개의 자수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자수 당 100명의 고객(총 1000명)에게 2박3일간 아슬란 차량을 대여하고, 현대차가 후원한 서울시향 베토벤 교향곡 연주 실황 녹음 음반 패키지를 증정한다.

또 시승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음악 칼럼니스트 정준호의 강연과 다양한 카오디오 신기술을 체험하는 '하만 프리미엄 오디오 익스피리언스'에 초대한다.

/이정필기자

기아차, 대졸 신입 공채… 직무별 맞춤 선발

기아자동차가 상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채를 시작한다. 18일 오후 5시까지 기아차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kia.com)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 8월 졸업예정자나 기졸업자(석사 포함)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HMAT), 1차/2차 면접 순이며 직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K형, I형, A형으로 나눠 직무별 맞춤 채용 과정을 진행한다.

K(Kreative)형은 창의적 사고와 뛰어난 통찰력을 갖춘 인재로 상품, 마케팅, 해외영업, 국내영업 부문 등이 포함된다. I(Interactive)형은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남을 배려하는 소통의 인재로 생산공장, 생산기술, 품질, 구매 부문이 해당한다. A(Adventurous)형은 과감한 추진력을 갖춘 도전의 인재로 경영지원, 재경 부문 등이 포함된다.

기아차는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1차 면접을 1박2일 합숙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직무면접뿐만 아니라 영어면접, 야외활동 등을 통해 응시자의 직무적합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인적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현업에 있는 직원들과의 직무 상담을 시행하며 공장견학과 봉사활동 기회도 제공한다.

기아차 채용 담당자는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단순한 스펙보다는 기아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liberum@

티볼리 효과… 쌍용차 영업사원 대규모 채용

전국 영업소도 내년까지 200개로 확충

쌍용자동차가 신차 티볼리(사진)의 판매 호조에 따라 영업직 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영업소도 내년까지 20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9일 오토 매니저(영업직 사원) 300여 명을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그동안 해마다 100명 이내로 영업직 사원을 선발해왔으나 올해처럼 300여 명씩 대규모로 뽑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이다.

쌍용차는 이달 23일까지 입사지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 보유자로 사회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대졸 내외 졸업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입과 경력사원 모두 지원 가능하며, 자동차 영업을 포함한 영업 경력자는 우대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티볼리가 출시되면서 젊은 고객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객 연령대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와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젊고 참신한 인재를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선발된 오토매니저들은 소정의 입문 교육을 거쳐 전국 180개 영업소에 배치돼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쌍용차는 새로 선발한 오토매니저에게 판매수수료와 각종 인센티브 외에도 영업활동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초기 8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며 매월 등급별 판촉지원금과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직급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도 지원한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전국의 영업소 수를 현재 180개에서 내년까지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태종기자 fundi@

현대중공업, 자사주 직원격려금 지급

현대중공업은 1566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120만9511주를 매각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자사주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격려금 150%를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2014 임금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자사주로 1471만1560주(지분 19.4%)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자사주를 처분하면 지분율이 17.8%로 줄어든다.

회사는 6월 6일까지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이전할 예정이다.

자사주 계좌에서 직원 개인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사주가 처분된다.

해당 주식은 곧바로 팔 수 있다.

/이정필기자

감성힐링뮤지컬
하늘아
엄마 숨 속엔
늘 니가 있어…
2014. 10. 31 ~ 2015. 04. 17 열린 극장
문의 | 1644 8609

세계 주류품평회 막걸리 공식 출품

막걸리가 세계 주류시장에서 와인·위스키·사케 등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하며 국제적인 주요 주류품평회에 공식 출품부문(Category)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순당(대표 배중호)은 세계적인 주류품평회에 출품부문에 '막걸리(Makgeolli)' 부문의 신설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6개 국제 주류품평회에 막걸리 부문 신설이 완료됐으며 4개 국제대회에 신설이 확정됐거나 신설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출품부문에 막걸리 부문을 새롭게 신설한 대회는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꼽히는 영국의 IWSC를 비롯해 미국의 '뉴욕 국제 와인 품평회'·'샌프란시스코 국제 와인 품평회'·'LA 국제 와인 품평회'와 벨기에의 '몽드 셀렉션'·호주의 '멜버른 국제 와인 품평회' 등 4개국 6개 대회이다.

그동안 국제 주류품평회에는 '막걸리' 부문이 별도로 개설돼 있지 않아 우리나라 막걸리는 라이스 와인이나 사케 부문에 출품했으며 이런 이유로 세계 주류시장에서 사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막걸리는 국제 주류품평회에 꾸준히 출품돼 여러 차례 수상했으나 라이스 와인이나 사케 부문 또는 세미 스파클링 와인 부문에 출품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삼광글라스, 중국 공략 속도 붙나

'중국통' 이도행 대표 선임…상해법인 상반기 설립

삼광글라스가 '중국통'으로 통하는 이도행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6일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도행 사장(55·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1994년부터 OCI(옛 동양제철화학)에서 기획담당과 사업부담당 임원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삼광글라스에서 기획담당 상무·마케팅 영업총괄 전무를 거쳐 지난해 5월 사장으로 승진한 후 올해 3월 대표이사로 발탁됐다.

특히 이 대표는 동양제철화학에 근무할 당시 3년 간 중국 법인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중국통으로 알려졌다.

삼광글라스는 이복영 회장과 전문경영인 이도행 사장 체제로 재편하면서 올해 중국 사업에 탄력을 받게됐다. 중국 상해 법인 설립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

2010년 50억원 수준이었던 중국 수출 실적은 지난해 약 225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삼광글라스 전체 해외 수출 비중 중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

다. 올해는 300억원 이상을 매출 목표로 잡았다. 진출 초기 현지 대리점을 통해 유통망을 확대해왔으나 올해는 홈쇼핑과 기업 특판·온라인 분야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 주력한다.

또 중국 내 매출 견인 제품인 글라스락을 비롯해 최근 스마트 글라스락·냉동실 전용용기 프리저 클래식 텀블러 등을 이번에 새롭게 중국에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총 관리를 맡았던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판·홈쇼핑·온라인 등 유통 채널을 법인에서 직접 맡게돼 예전 대리점들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해 중국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톡톡' 손끝 쇼핑시대…모바일 쇼핑족 잡아라

유통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상 스토어·스마트 쿠폰북 앱 등 유인책

성장이 멈춘 유통업계에서 모바일이 '1등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옮겨가고 소비자들의 장보기 습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뿐만 아니라 백화점·대형마트까지 모바일 쇼핑족 잡기에 나서면서 업종간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의 매출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1.5%, 7.7% 줄었다. 반면 모바일 매출 신장률은 이마트 200%, 홈플러스 184.7%, 롯데마트 166.5%로 크게 성장했다.

온라인몰은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G마켓의 경우 모바일 비중이 2012년 3%에 불과했지만 지

난해 33%까지 급증했다. 옥션도 2013년 3% 초반이었던 것이 2014년 30%까지 늘었다. 소셜커머스 쿠팡은 지난해 모바일 거래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2012년 1500억, 2013년 66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모바일 장보기 활성화가 저성장 속 돌파구로 떠오르자 각 업계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공들이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9월 오프라인 매장 상품 전시를 그대로 모바일 화면에 구현한 이마트 모바일 가상스토어 앱을 선보였다. 앱에 접속하면 화면에 식품 생활매장이 나타나며 각 매장에 있는 상품군을 클릭하면 매장 진열대에 있는 해당 상품의 실물 사진을 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모바일 주 고객층인 이른바 엄지맘을 겨냥해 유아용품을 선별해 제안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개개인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전단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10년 만에 매출이 뒷걸음질친 백화점업계도 모바일앱을 통한 고객 공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속속 모바일 앱 구축에 나서 고객 반응 등을 정밀 분석한 뒤 최근 본격적인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상품 소개와 구입이 가능한 모바일 앱은 물론 지난해 4월 종이 전단지(DM)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쿠폰북 앱도 내놨다. 현대백화점 앱은 고객 및 총형 DM 기능을 탑재, 고객 개인의 구매 패턴과 라이프스타일, 선호 제품군을 분석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다.

홈쇼핑도 모바일 시장 잡기에 나섰다. 불황에 독종 성장을 이룬 TV홈쇼핑 산업이지만 최근 TV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취급고 가운데 모바일이 중요 카테고리인 만큼 적립금과 할인쿠폰 등을 나눠주며 고객 유인에 앞장서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

손경식 CJ그룹회장(왼쪽)이 9일(현지시간) 킹덤홀딩컴퍼니 본사에서 알왈리드 사우디 킹덤홀딩컴퍼니 회장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CJ그룹, 알왈리드 사우디 왕자와 협력 논의

손경식 회장, 킹덤홀딩컴퍼니와 전방위 협력 · "E&M부터 다른 분야 확대"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세계적인 민간 투자 회사인 킹덤홀딩컴퍼니(KHC)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콘텐츠 분야를 비롯한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킹덤홀딩컴퍼니의 본사에서 알왈리드 빈 탈랄 회장과 만나 향후 공동으로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이 양사는 콘텐츠 분야 등 문화산업에 있어 우선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알왈리드 회장은 CJ E&M의 사업 영역과 해외 진출국 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E&M 영역부터 대화를 시작해 추후 (물류 등) 다른 사업분야로 확대하자. 투자뿐 아니라 사업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CJ그룹은 아시아 최고의 콘텐츠 기업으로써 킹덤홀딩스컴퍼니의 아시아 진출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역량을 토대로 빚어낼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호응했다. 손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알왈리드 회장의 한국 방문을 제안했고, 알왈리드 회장은 즉석에서 수락했다.

"봄 참외 맛보세요" 이마트는 참외를 11일까지 시세 대비 20% 가량 저렴한 9800원(1봉/1.5kg 내외)에 판매한다. 품질을 위해 전량 당도 선별 검사를 했으며, 참외가 가장 맛있는 당도인 12브릭스 수준의 과수로 엄선해 상품화했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이마트 제공

호텔업계, 봄맞이 레스토랑 새단장

최고급 식재료 사용한 신메뉴 출시…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봄을 맞아 호텔업계 레스토랑에 리뉴얼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은 뷔페 메뉴와 주방 설비·기물 등을 일괄 업그레이드해 9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장했다. 뷔페 레스토랑은 소프트 리뉴얼을 통해 뷔페 메뉴를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와 위생과 청결까지 더욱 신경 써 믿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호텔 측의 포부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의 레스토랑은 20일 워커힐 더뷔페로 리뉴얼 오픈한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크게 달라진 점은 메뉴다. 한식 코너에 워커힐의 강점인 궁중요리와 팔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한식을 제공하며 중식 코너에는 중국 4대음식(북경·사천·상해·광동)의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샐러드 코너에서는 슈퍼푸드에 선정된 세계 10대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식 샐러드를 내놓는다. 최근 중국인 고객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이 선호하는 단품 메뉴판을 새로 제작해 등 전복구이, 로브스터 구이 등의 메뉴를 고객 추가 주문 시 제공한다.

메이필드 호텔의 레스토랑 미슐랭은 약 한달간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지난 5일 오픈했다. 클래식한 분위기 속 모던한 감각이 묻어나는 인테리어로 새 단장한 미슐랭은 친환경 자연음식을 콘셉트로 호텔 직영 예산 농장에서 직접 키운 식재료를 사용한다. 프리미엄급 무요오드 소금을 사용한 저염식 음식을 내놓는다.

메이필드 호텔 제공

그린 샐러드에는 첨가물없는 100% 염화나트륨으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는 코셔 소금을 사용하고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하고 장시간 숙성에 적합한 히말라야 소금은 육류 마리네이드에 사용한다. 핫디쉬(Hot Dish)의 소스는 조리장이 개발한 천연 야채퓨레를 기본 베이스로 담백한 맛을 더했다.

리츠칼튼서울의 더 리츠 델리는 야채를 곁들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베이커리를 출시했다. 리츠칼튼 서울의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총괄하고 있는 강길원 페스트리 셰프는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베이커리를 만들기 위해 오래 연구했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유기농 밀가루와 설탕, 소금 등 유기농 식재료만을 이용한 베이커리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보라기자 bora6963@metroseoul.co.kr

선글라스도 '복고'가 대세

70년대 패션과 어울리는 레트로 디자인 주목

최근 드라마·영화의 영향으로 복고 열풍이 패션 업계에서 화두인 가운데 올해 선글라스 시장 트렌드로 '레트로'가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패션과 어울리는 '캣아이' '버터플라이' '보잉' 등의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거 포인트가 눈에 띄는 젠조의 2015년 신제품은 눈 꼬리 부분의 과하지 않은 캣 아이 디자인이 세련된 레트로 룩을 완성해 준다. 유연한 캣 아이 쉐입에 라미네이션 디자인이 조화를 이뤄 전체적으로 빈티지하고 펑키한 레트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발리는 레트로 무드를 반영한 와이드 버터플라이 쉐입의 선글라스를 제안했다. 특히 프레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장식의 트라이앵글포밍 디테일이 추가돼 럭셔리 레트로의 정석을 보여준다. 여성스러운 느낌의 와이드 렌즈 등 하늘하늘한 소재의 1970년대 패션 아이템과 함께 매치하는 것도 좋다.

레트로 감성과 조화를 이루는 클래식한 보잉 선글라스는 발리 선글라스의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와 만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다. 특히 화려하지 않은 간결한 메탈 프레임은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올봄 주목받을 것으로 업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 다양해졌다"며 "2015년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페미닌 스타일과 레트로 스타일이 융화된 아이웨어가 최근 핫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

오리온, '닥터유'로 기능성 캔디 시장 진출

캔디 한 알마다 도라지 분말 2.4mg 함유

오리온(대표 강원기)이 '닥터 유 민티' 를 출시, 기능성 캔디 시장에 진출한다.

민티 한 알에는 도라지 분말 2.4㎎이 들어있는 무설탕 캔디다. 도라지는 기관지와 호흡기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식물로 동의보감에도 언급된 식물이다. 사각형의 슬림한 케이스는 휴대 및 보관하기에 좋다. 종류는 페퍼민트, 피치민트 2가지이며 가격은 2000원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황사로 목 건강에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도라지, 페퍼민트 등이 들어 있어 목을 많이 사용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능성 캔디 시장은 연간 370억원 규모로 롯데제과의 목캔디가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스 브레이커스, 호올스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목 보호 캔디가 목이 답답하거나 기분 전환 시 필수품으로 인기가 높다.

얇아진 지갑…화이트데이 알뜰족↑

중저가 초콜릿·사탕 껑충 -주얼리·핸드백 성장세 주춤

올해 화이트데이는 경기불황 여파에 알뜰구매가 늘고 있다. 중저가 초콜릿·사탕 판매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주얼리와 핸드백 판매는 주춤하고 있다.

9일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화이트데이 상품 가격대별 매출 구성비에서 1만원 미만 상품의 비율이 높아졌다. 2011년과 2012년에는 1만원 미만 상품의 매출 구성비가 각각 49%였으나 2013년에는 73.1%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72%로 전년보다는 소폭(1.1%) 줄었으나 2011~2012년과 비교하면 23% 포인트 늘었다.

길어지는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화이트데이에 주고받는 선물 구매 가격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GS25는 분석했다. 세븐일레븐도 1만원 이하 화이트데이 상품 매출 비중이 2013년 40.8%에서 지난해 50.6%로 9.8% 늘었다.

남성들이 화이트데이 인기 선물로 많이 찾던 주얼리와 핸드백 판매량은 주춤했다.

G마켓은 주얼리와 시계는 지난해 화이트데이 직전 30% 크게 증가했었으나 올해는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핸드백 판매량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명품 핸드백과 명품 시계의 경우 오히려 소폭 줄었다.

반면 초콜릿과 사탕 판매는 각각 103%, 54% 늘었다. 특히 고가 제품 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잘 팔렸다. 키세스·드림카카오 등 낱개형 초콜릿의 경우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김보라기자

풀무원건강생활 '홍삼활력청' 출시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이억헌)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그린체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인삼만을 사용한 홍삼을 주원료로 하고 홍삼청과 마누카벌꿀, 프로폴리스추출물을 더한 '홍삼활력청'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GAP인증 인삼만을 선별해 풀무원의 저온진공건조공법으로 가공한 풀무원홍삼이 주원료다. 저온에서 건조한 풀무원홍삼은 규격 사포닌의 함량이 높고 진공처리를 통해 가공이 쉽게 썹으면 바삭하고 맛이 부드럽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전국 그린체 가맹점 및 헬스어드바이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애경 투나 '런웨이 아이 키트'

애경의 색조전문 메이크업브랜드 투나에서 '런웨이 아이 키트'를 출시했다.

투나 '런웨이 아이 키트'는 핑크톤부터 브라운톤까지 12가지의 풍부한 색상으로 구성된 아이섀도다.

다양한 눈매 표현과 얼굴 윤곽 연출 등 활용성 높은 것이 특징. 바닐라·코랄 등 베이스 색상과 에스프레소·샴페인골드 등 포인트 색상의 조합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올리브오일과 콜라겐파우더 등이 함유돼 사용 시 가루 날림이 적고 광택없이 피부에 부드럽게 발린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가 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자역(학)에서 2015학년도 선취업 후진학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오리엔(문학) 석좌교수가 특강을 하는 모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공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입학식

선취업 후진학 과정 신·편입생 849명 참석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가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자역(학)에서 2015학년도 '선취업 후진학' 과정 신·편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프라임칼리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부로 방송대는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 자리에는 신·편입생 849명이 참석했다.

김원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학장은 "프라임칼리지를 통해 신·편입생 개인의 발전은 물론 일·학습 병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관광공사, 원주시대 연다

10일 신사옥 이전식 개최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강원도 원주 시대를 연다.

관광공사는 오는 10일 강원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이전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원주 이전을 계기로 공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문화 융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 강원지역 관광 진흥과 관광 문화 산업 성장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석재 관광공사 지방이전추진단장은 "이번 이전은 맞춤형 관광 플랫폼 국민기업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께 이전하는 타 공공기관들과 함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봄, 뇌혈관도 '꽃샘추위'

급격한 온도 변화 탓 뇌혈관질환 유발 주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제공

봄이지만 겨울과 같이 자기은 꽃샘추위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 급격한 온도 변화는 뇌혈관질환을 가져올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단일 질환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환은 뇌혈관질환이다.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시기는 3월과 12월 등 전월 대비 온도 변화가 많은 시기다.

정석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뇌졸중 센터장은 "뇌졸중 환자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지만 3월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꽃샘추위 등 기후적 변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사실 기온이 떨어지면 혈압은 높아진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다면 이와 같은 급격한 혈압 변화는 위험하다. 혈류 증가를 혈관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뇌로 향하는 혈관인 경동맥이 손상되면 산소나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뇌는 일부만 손상되더라도 다양한 기능성이 소실될 위험에 처한다. 운동 기능을 상실하는 마비 증세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장애가 대표적이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언어 장애(실어증), 정확한 발음이 어려워지는 발음 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시각 이상이나 균형감각 상실을 겪은 수도 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실내·외의 온도차를 고려한 옷을 준비하고 외출하기 전 간단하게 몸을 풀어 체온을 정상시켜야 한다. 야외활동을 즐기고 싶을 때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야 한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이 더 쉽게 막힐 수 있다.

정 센터장은 "뇌혈관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등 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강강술래, 1000석 규모 갈비전문관 오픈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양시 대자동에 1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갈비구이 전문관을 정식 오픈했다. 1만2000평 규모로 조성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외식 테마파크에 있다.

새롭게 선보인 갈비전문관은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의 고급스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통 한옥으로 꾸몄다. 아늑하고 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한국 전통의 멋과 기풍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전용 2~4층은 한우와 양념갈비 등을 맛볼 수 있는 구이전문관이 다. 1층은 갈비탕, 매장국, 냉면 등의 식사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전문관, 지하 1~2층은 주차장이다. 총 6층으로 구성돼 강강술래의 가장 큰 매장이자 국내 음식점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자작나무와 느티나무 군락지에 자리잡고 있는 넓은 매장 곳곳에는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해 트레킹 코스와 쉼터를 마련해 산책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야외 정원에서는 매일 7팀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져 가족 단위나 주부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강술래는 오픈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받는다. 늘봄 육개장 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2만9000원, 늘봄갈비탕 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ml)을 2봉 더 준다.

또 온라인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이달 15일까지 한우세트(한우양념구이 660g+한우불고기 500g)는 41% 할인된 6만5000원, 한우사골곰탕 소요량팩스(350ml/10팩)는 약 50% 할인된 3만1500원에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카타르항공, 봄맞이 특가 프로모션

13일까지 전 노선 최대 35% 할인

카타르항공이 13일까지 전 세계 140여 개 노선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특가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특가 항공권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여행을 완료하는 일정이다. 또 서울 출발 유럽편의 경우 세금과 유류할증료를 모두 포함해 77만원대부터 이용 가능하다.

아크바르 알 바커 카타르항공 그룹 최고 경영자(Group CEO)는 "봄을 맞아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봄꽃수조' 전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김희철)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여수·제주와 63씨월드에서 새봄을 맞아 '아쿠아플라넷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봄'을 주제로 '봄꽃 수조'를 전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63씨월드는 '동양의 꽃(Oriental Blossom)'을 콘셉트로 10만 마리 중 1마리만 볼 수 있다는 '황금송어'가 벚나무 아래에서 유유히 유영하는 모습으로 꾸며진다. 또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는 '골든나비고기'를 메인으로 봄이 형상화됐다.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주상절리터널 입구와 내부를 벚꽃으로 전시해 봄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아울러 한화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에서는 고화 꽃박람회 티켓과 더 플라자 숙박권 등이 주어지는 '베스트 봄꽃 수조 선발' 이벤트가 15일까지 열린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이 남자의 눈빛 깊어졌다

행복하기만 했던 신혼생활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다. 연쇄 살인마에게 아내를 잃은 남자의 마음은 끝없는 분노로 가득 차오른다. 아내의 시체마저 찾지 못한 남자에게 남은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 아내를 죽인 이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그의 비극에 남아 있다.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은 이 같은 고통과 처절한 감정을 김성균(34)은 영화 '살인의뢰'(감독 손용호)에서 견뎌내야만 했다. 데뷔작인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를 필두로 '이웃사람' '박하' '괴물을 삼킨 아이' 등에서 그가 연기한 역할들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의 변신이라고 할 만하다. "김성균 생애 첫 피해자 역할"이라는 말이 단순한 홍보 문구만이 아닌 이유다.

"이전에는 가해자 역할이 많았죠. 저의 몽타주를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었다고 할까요. 반면에 '살인의뢰'는 감정적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이었어요. 평생 연기하며 사는 것이 목표인 만큼 이렇게 깊은 감정에 들어가는 연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배우로서 큰 공부가 된 작품이었어요."

아내 잃은 피해자역으로 변신
촬영 내내 힘든 감정 유지 고생
평생 배우로 연기하는 것이 꿈

'살인의뢰'에서 김성균이 연기한 승현은 이마를 덮을 정도의 긴 앞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말없고 수줍은 남자다. 아내의 전화에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에서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영화는 이 평범한 한 남자가 연쇄살인마에 의한 피해자 가족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피해자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냈다는 점에서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가족의 감정에 다가가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김성균은 "최근 몇 년 동안 내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겼났다"며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째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커진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 절절이 끓었다"고 말했다. 대신 영화 내내 그 힘든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는 "유독 피해자가 홀로 있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많아서 매 장면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굉장히 우울한 감정이잖아요. 그 마음을 연기를 위해 유지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인물에 너무 몰입해서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승현의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든 건 없었죠. 다만 일상생활에서도 문득문득 촬영장에서 승현으로서 가진 생각과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승현의 이야기가 마치 저의 과거처럼 느껴졌나봐요."

'살인의뢰'는 순수한 악 그 자체인 살인마 강천과 그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긴 남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된 형사의 이야기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김성균은 "촬영하는 동안 감독님과 피해자의 심정과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 그런데 우리 영화가 이렇게 사형제도에 속 깊은 의미가 있는 줄은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알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죄송한 우리 영화에 등장하는 강천이라는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싶다. 일말의 뉘우침도 없는 악마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김성균은 2014년 한 해 동안 영화 여러 편을 연이어 촬영하며 바쁘게 지냈다. 2015년에도 '허삼관'에 이어 '살인의뢰'가 개봉됐고 촬영을 마친 '이큐 에 내리는 눈'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명탐정 홍길동' 촬영에 한창이다. "아주 매력적인 악역을 맡았다"는 그는 "색다르고 새로운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귀띔했다. 올 여름에는 셋째 아이도 태어난다. 평생 연기하는 것이 꿈인 김성균에게 2015년도 여느 해처럼 바쁜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영화 '살인의뢰' 김성균

star bag

첫 솔로 미니앨범 발표

걸그룹 걸스데이 **민아**가 16일 첫 솔로 미니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걸스데이 멤버 중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며 "발라드곡과 댄스곡 중 고심 끝에 최종 타이틀 곡은 댄스곡으로 결정해 현재 연습 연습에 한창"이라고 전했다.

어린 시절 사진 공개

영화 '순수의 시대'에 출연한 신예 배우 **강한나**가 어린 시절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강한나는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와 보기 늘씬한 팔다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발레복을 입고 얌전맞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영화에서 선보이는 무희 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영화는 지난 5일부터 상영 중이다.

캐나다 첫 단독콘서트

걸그룹 **바버렛츠**가 오는 14, 15일 캐나다 토론토 센터 포 디 아츠와 리스 펜 리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첫 캐나다 단독 공연은 현지 공연기획사 HYPR 크리에이티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어 17~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 참가한다.

화정 서 야심가 변신

배우 **조성하**가 MBC 새 월화극 '화정'을 통해 야심가로 변신한다. 그가 분한 강주선은 서인의 관리다. 막대한 재력을 소유한 대부호지만 소탈한 성격과 개방적인 사고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내면에는 권력을 향한 욕망을 지녔다. '빛나거나 미치거나' 후속 작으로 내달 첫 방송.

theater review

/신효주 PD

■도둑맞은 책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 서동윤(박호산 이현철)이 시상식에서 사라졌다. 마취에서 깬 그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지하방에 갇혀 있다. 그를 납치한 건 보조 작가 조영락(김강현 김철진)이다. 조영락은 슬럼프에 빠진 시나리오 작가가 살인을 하고 사라졌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서동윤에게 시나리오를 쓰라고 협박한다.

살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는 자신이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 과정 그리고 집필하면서 겪는 고뇌를 관객과 공유한다. 두 배우는 사건이 일어난 과거를 추적하며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나리오 제목은 '도둑질한 책'에서 '도둑맞은 책'으로 바뀐다. 서동윤과 조영락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를 반영했고 이를 보는 재미가 있다. 서동윤의 쫄깃한 욕과 조영락의 1인 다역이 조화롭다. 구멍 없는 연기가 100분을 가득 채운다.

작품은 영화 '고사-두번째이야기' '내 심장을 쏴라', 드라마 '뱀파이어검사 시즌2' 등으로 탄탄한 각본 연출력을 인정받은 유선동 감독의 동명 영화시나리오를 원작으로 했다. 원작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전개를 지루하게 느낀 관객이 있다면 극 초반 연출과 두 배우로 압축된 이야기가 단련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은 이 문제를 보완하면서 연극을 보다 다채롭고 몰입감있게 만든다. 사람의 형체만 겨우 갖춘 캐릭터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무대 위 두 배우들이 표현하는 스토리의 한계를 보완한다.

연극 '도둑맞은 책'은 내달 26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가인, 섹시 넘어 파격

솔로 미니 4집 '하와' 발표…일부 안무 지상파 방송 부적합

가수 가인(사진)이 표현하는 이브(Eve)는 어떤 모습일까?

가인은 7일 네 번째 미니앨범 '하와(Hawwah)' 시사회를 열고 신곡을 공개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로 이브(Ev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탄(뱀)의 유혹으로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깨물어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는 인물이다.

가인은 "제가 무교라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정도 밖에 몰랐다"며 "이번 앨범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 굉장히 어려운 콘셉트였다"고 밝혔다.

작사가 김이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인은 하와를 하나의 캐릭터로 보고 이번 앨범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가인의 앨범 속 '하와'는 현대적이다. 선악과를 깨물기 전의 순수한 하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깨물지 말지 갈등하는 하와, 선악과를 깨문 후 유혹적으로 변한 하와를 각 노래마다 다르게 표현했다.

가인은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한다. '파라다이스 로스트(Paradise Lost)'와 박재범이 피처링한 '애플(Apple)'이다. 전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치명적인 하와라면 후자는 선악과를 깨물기 전 갈등하는 순수한 하와다.

음악과 안무 등 외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는 "'애플'이라는 노래 제목에 따라 애플힙을 만들고자 했다. 워낙 마른 편이라 몸매에 볼륨이 없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하체 운동만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벌크업(몸집을 키운 것)된 상태에서 시사회장에 갔다가 살이 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위기소침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래에 어울리는 건강하고 탄력적인 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파라다이스 로스트'의 안무 콘셉트는 뱀의 움직임이다. 가인은 "섹시한 콘셉트라고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웨이브를 주는 것은 싫었다. 원자원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았다"며 "뱀을 표현하기 위해 약 두 달 정도 현대무용 강습을 받았다. 아쉬운 점은 이 안무를 지상파 방송에선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오전 0시에 공개되는 가인 솔로 4집 '하와'엔 두 타이틀곡을 포함해 '프리퀄' '더 퍼스트 템테이션' '두 여자' '길티' 등이 수록돼 있다.

/김지민기자 jenakim@metroseoul.co.kr

김윤석·강동원 신부로 재회

'검은 사제들' 촬영 시작…하반기 개봉

영화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이 배우 김윤석(사진 왼쪽), 강동원(오른쪽)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 5일 대구에서 크랭크인했다.

'검은 사제들'은 위험에 직면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뛰어든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전주국제영화제, 파리한국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단편 '12번째 보조사제'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첫 장편영화다.

김윤석과 강동원은 '전우치'에 이어 또 다시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됐다. 김윤석은 의심과 반대 속에서 의식을 주도하는 김신부 역을 맡았다. 강동원은 김신부를 돕는 최부제 역으로 함께 한다.

첫 촬영을 마친 김윤석은 "신부님의 로만칼라가 아직은 낯설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복장이다.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신부복을 입었을 때 얼마나 멋있을지도 기대해주면 좋겠다. 이제 시작이니 끝날 때까지 열심히 촬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현 감독은 "훌륭한 배우들과 작업하게 돼 영광이다. 데뷔작이라 긴장되지만 좋은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하는 작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검은 사제들'은 올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장보리처럼 소리는 많이 질러요"

이유리 tvN '슈퍼대디열'서 국민 엄마

배우 이유리(사진)가 국민엄마에 도전한다.

이유리는 지난해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 역으로 전국적 인기를 얻었다. tvN 새 금토드라마 '슈퍼대디열'에선 시한부 싱글맘 차미래 역을 맡았다. 차미래는 딸 사랑이(이레)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성애가 강한 캐릭터다.

9일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tvN 새 금토극 '슈퍼대디 열' 제작발표회에서 이유리는 "연기 변신이라는 생각보다 차미래처럼 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큰 상을 받아서 차기작을 선정하는 데 부담스러웠다"며 "부담을 갖는다고 작품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다들 연민정과 다른 변신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에도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억압을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슈퍼대디 열'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한 때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첫사랑에게 차인 후 평생 혼자 사는 게 목표가 된 독신남 한열(이동건)과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 결혼하자고 하는 한열의 첫사랑 싱글맘 차미래(이유리), 그게 아빠가 갖고 싶은 미운 여덟살 사랑이(이레)의 이야기다. 가족의 소중함을 통해 힐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오는 13일 첫 방송.

/한효진 기자

김수현, 드라마 '프로듀사'로 컴백

'별그대' 작가와 재회

배우 김수현(사진)이 1년 여 만에 복귀한다.

KBS와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9일 메트로신문에 "김수현이 새 드라마 '프로듀사'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측은 '프로듀사'가 금토드라마로 오후 11시에 편성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며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프로듀사'는 KBS 예능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내는 드라마다.

김수현은 '프로듀사'에서 예능국 신입 PD 역을 맡았다. 차태현과 공효진이 예능국 10년차 PD 역으로 출연하고 가수 아이유가 톱스타 여가수로 출연을 확정했다.

김수현의 컴백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첫 행보로, '별에서 온 그대' 박지은 작가와의 두 번째 만남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내달 중순 방송 예정.

/한효진기자

2015 이은결 더 일루션

THE ILLUSION

개막기념 30% 할인
(3월 10, 11, 12, 13일 공연)

FAMILY PACKAGE
3, 4인 가족권 30% 할인
VIP, R석에 한함, 증빙자료 지참

COUPLE PACKAGE
커플들을 위한 특별 패키지
VIP연인석2장+와인1병/ 둘만을 위한 메시지 티켓

2015. 3. 4(수) ▸ 4. 12(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시간 평일 8시 /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제작 이은결 LEE EUN GYEOL PROJECT 주최 충무아트홀

티켓가격 VIP패키지 13만원 / VIP 10만원 / R 8만원 / S 6만원 / A 3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1577-3363

최고 기술 경영인 성공철학 들어볼까

단국대 특강 마련 최창현 삼성토탈 부사장 필두 CTO 릴레이 강의

단국대가 국내 주요 기업의 전·현직 최고기술 경영인(CTO·Chief Technology Officer)들을 초청, 정규 특강 과목을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단국대는 공과대와 건축대학 학생 120명을 위해 2015년 1학기에 'CTO 기술경영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은 대기업 경영에 관한 경험담과 국내외 경제 동향 등 실무 감각을 배양할 수 있게 꾸며졌다. 수강 학생들은 2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11일 죽전캠퍼스 국제관에서 최창현 삼성토탈 부사장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최고기술 경영인 클럽(CTO 클럽) 소속 경영인 13명의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1메가 롬(ROM)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이희국 (주)LG 사장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향방과 차세대 에너지 기술 전망'을 주제로 강단에 선다.

또 독자적으로 알파엔진을 개발해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현순 (주)두산 부회장(현대자동차(주) 前 부회장), 박종족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한국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해 온 CTO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단국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최고기술 경영인들만의 성공 철학 및 경영 전략 등을 전달해 미래를 준비하는 단국대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무단횡단'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 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61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70%(49명)는 보행 중 사고였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의 51%였고 이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23명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해 습관적인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에 요청, 대대적인 무단횡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울타리 등 무단횡단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도색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시도하기로 했다.

시는 또 무단횡단 사망자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기왕이면 남성?

기업 36% "역량 부족해도 채용"

상당수의 기업이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시장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아직 존재한다는 얘기다.

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92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55.7%가 '있다'를 선택했다. 이들 중 62.5%가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히 35.5%는 '역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별 때문에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로 '강도 높은 업무를 더 잘 할 것 같아서'(50.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근, 출장이 많은 편이라서'(37.3%), '책임감이 높을 것 같아서'(31.3%), '조직 적응력이 더 높을 것 같아서'(28.4%)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현기자 lkh@

천수만에 나타난 삵 멸종위기 동물인 삵 한 마리가 9일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간척농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골고루 먹어요~ 9일 서울 중랑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계절체험관을 찾은 동춘제일유치원 어린이들이 기자재를 활용한 영양교육을 받고 있다. 진흥원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보건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MT 강제 참석·가혹 행위 없어야"

교육부, 전국 대학에 공문

매년 봄이면 대학 엠티의 강압적 분위기와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교에 안전한 엠티가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9일 "대학의 학과별 엠티 등 외부 행사가 진행될 때 학생의 자율적 참석을 안내하고 가혹 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5일 전국 대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 엠티와 관련해 학생의 강제 참석 요구와 선배들의 얼차려 등 가혹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문은 지난해 2월 대학생 10명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대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마우나리조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각 대학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과거 총학생회가 주관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올해 대부분 대학 본부가 주도하거나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과음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 주관으로 진행되면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며 "각 대학이 앞으로 엠티에 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인사

■ 외교부
△ 실장급 ▲ 기획조정실장 김형진 ▲ 재외동포영사대사 이기철
◇ 국장 ▲ 남아시아태평양국장 김영준 ▲ 유럽국장 박철민
◇ 심의관급 ▲ 국제기구국 협력관 황상욱

■ 대한상사중재원
▲ 기획관리본부장 김익수 ▲ 분쟁종합지원센터장 정규호 ▲ 분쟁종합지원센터 수석위원 이영호 ▲ 기획관리본부 경영기획팀장 오현석 ▲ 기획관리본부 전략기획팀장 김건렬 ▲ 중재사업본부 국내중재팀장 김지호

■ 한국전기안전공사
▲ 부사장(겸직) 이완성 ▲ 기술이사 강이원

부고

▲ 박종훈씨 별세, 박휴록(대웅제약 바이오연구소장) 미화씨 부친상, 최신(BMW코리아 부사장) 장인상 = 8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2-2650-2742

▲ 박종문씨 별세, 박지원(프로야구 케이티위즈 코치)씨 부친상 = 8일 오후,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51-610-9977

▲ 손옥선씨 별세, 김경헌(NH투자증권 강북지역본부장)씨 장모상, 김미숙·최진씨 모친상 = 3월 7일 오후 4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30분 031-787-1500

▲ 서미자씨 별세, 김우식(YP엔터테인먼트 대표)씨 모친상 = 9일 오전 7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2-2258-5940

▲ 오경순씨 별세, 이영수(기호일보 편집부국장)씨 모친상 = 9일 오전 10시,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6시 010-3064-1971

최저임금 6000원 시대 오나

다음달 첫 회의 열려… 노동계 기대 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시급 5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4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 된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대감을 촉발시켰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정·청도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더욱이 다음 달 말 첫 전원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위의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4월 23일에 끝나게 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측에 보의적인 인사로 배치되면 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원각에서는 최고 7000원 중반대까지의 최저임금이 거론되는 등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황재용기자 hoyu@@metroseoul.co.kr

하나만 더!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검사 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2명 살해 뒤 암매장한 30대 엄마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의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영아 살해 및 사체유기)로 이모(31) 여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이씨가 아이를 암매장한 현장. /연합뉴스

신·변종 성매매 알선 숙박·목욕업소 처벌기준↑

3년간 2번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면허취소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용업자가 숙박자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1년에 3차례 위반해야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2차례만 위반해도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

또 현재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3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2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이·미용업주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처벌 기준도 강화돼 3년간 2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찜질방과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의·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안전처 상황실장, 휴일근무 후 쓰러져 사망

휴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9일 만에 숨졌다. 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홍경우(54) 재난안전상황실장이 지난 1일 낮 강북의 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지난달 11일 임명된 홍 실장은 토요일인 같은 달 28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지하철로 퇴근하던 중 급격한 복부 통증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출혈 진단을 받은 홍 실장은 상태가 안정된 후 8일 수술을 받다 출혈이 심해 숨졌다.

안전처 재난상황실장은 전국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총괄하는 직위로 중앙부처 국장급 보직이다. /조현정기자

주차 확률 알려주는 앱 나온다

자신의 현재 위치 혹은 가고자 하는 장소의 인근 주차장 위치, 가격, 주차 면수, 주차 가능 대수, 해당 주차장에 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확률까지 알려주는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

9일 경찰청은 혼잡지역 내 주차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장 안내시스템'을 구축 중인 대한지적공사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TIS는 폐쇄회로(CC)TV 등 교통 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해 교통사고 발생 구간, 집회·시위에 따른 교통 지·정체 구간 등의 정보를 운전자 차량의 UTIS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지적공사는 이 UTIS 교통 정보를 인구밀도, 자동차등록 대수, 유동인구 등과 통합 분석해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차장 CCTV를 통해 주차장 면수의 점유 여부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해당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파악한다.

대한지적공사는 주차장 안내 시스템 앱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김기종 국보법 위반에 수사 초점

경찰, '이적물 소지 목적' 규명 총력… 리퍼트 대사 오늘 퇴원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사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9일 "김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 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7조5항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표현물의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 등과 관련된 조항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적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소지 목적이 국가안보를 해치는데 있었음이 입증돼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이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해 국보법 혐의 적용의 열쇠인 이적물 소지 목적성을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평소 집회나 토론회 등에서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고무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조항인 국보법 제7조1항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게다가 취재진에도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습 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는 10일 오후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9일 열린 브리핑에서 "얼굴 상처 부위의 실밥 일부를 오늘 아침에 제거했으며 내일 오전 중으로 나머지 절반도 제거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후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재용기자